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여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말라기서 강해

하나님이 오시는 날

(말라기 2:17-3:6)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우리에게는 잘했다 칭찬하실 말씀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는 심판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지막 남은 말씀 가운데 어느 것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지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은 말씀이 끊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부르짖으시고, 사도들이 잠깐 동안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또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용히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진리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약자들을 그대로 두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계시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다른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선 더 이상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1. 정의의 하나님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2:17).

하나님께서선 불의한 사람 앞에 나타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완악하여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만 지키고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어리석은 원망의 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하며 하나님을 희롱합니다.

그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가 더디더라도 심판자로 반드시 세상에 오십니다.

2. 심판자 하나님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3:5).

하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3:2).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듯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고를 하십니다. 물론 갑자기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예고를 하시고, 예고한 내용을 따라 일을 처리하십니다.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입니다. ‘나의 사자’란 말라기 선지자도 가리키지만 말라기와 같은 모든 선지자를 지칭합니다.

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거니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시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은혜의 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선 지금도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을 통하여 시시때때로 말씀을 주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심판의 칼을 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요, 구원을 받아야 할 때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삯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3:5).

하나님께서선 모든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실 터인데 남에게 거짓말 하고, 이간질 하고 궤행을 베풀며, 하나님 앞에서 결혼의 침소를 더럽힌 간음한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삯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들에게 심판의 칼을 드실 것입니다. 또한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없는 사람을 천대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칼을 드실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나 여호와와는 변하지 아니하니나 그러므로 아굽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3:6).

이제 우리에게선 잘했다 칭찬하실 말씀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는 심판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지막 남은 말씀 가운데 어느 것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지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하지 말고 바로 섬기며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아굽의 자손들로 소멸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008 사명자 대회

10월5일(주)-11월23일(주) 50일간

특별새벽기도회: 11월17일(월)-22일(토) 새벽5시

2008 사명자 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명자 대회는 서울교회 설립 50일 전부터 기도로 주님께 헌신과 사랑을 고백한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는 대회로 말씀과 기도의 작전으로 진행된다.

기간 동안 서울교회 성도들은 대신자 작정, 24시간 연속기도회, 다니엘기도(열열이 기도), 성경암송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된다.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대신자를 작정하여 아기를 품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여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이번 사명자대회를 섬길 실행위원 명단을 함께 신는다.

- 대회장: 이종윤 목사
- 지도: 장석남 목사 · 본부장: 이완형 장로

■ 진행분과(이광열)

- 진행: 총무 - 윤명구/ 위원 - 진교남 이강진 장양일 김영희 유기찬 최홍렬 한종우 김성준 박찬성 주영도
- 통계: 총무 - 은기장/ 위원 - 이강진 이병현 박희서 김형배 유형석 최정인 서명조 김영빈
- 발송: 총무 - 신선주/ 위원 - 고선옥 광미숙 김미성 김보경 김윤희 노진아 박상희 박신자 배은경 서수녀 석상화 양미정 원세경 유슬기 유하영 윤계진

이귀숙 이은숙

■ 홍보분과(신동기)

- 총무 - 허 숙/ 위원 - 서춘식 유태서 김민철 정미연 유은경 나소정 오주명

■ 전도분과(한상준)

- 총무 - 박이선/ 위원 - 원용규 전수자 김숙자 임명숙 박정임 강승웅 김은순 박길희 배준길 김상태 이인선 정찬주 김규희 조정옥 김미성

■ 기도분과(주동재)

- 연속기도: 총무 - 최규초 김혜란/ 위원 - 임송자 송인권 윤용미 윤숙희 정동화 강낙훈 황노전 김은순 김선영 박춘자 한광마 이승래
- 기타기도: 총무 - 이동만 박현영/ 위원 - 박성금 강윤숙 이학평 장나희 권장철 한성욱 김정운 이남성 김재근 장 덕 박정임 김혜련

■ 교육분과(최양진)

- 총무 - 박우주/ 위원 - 각 교육부서 부장

■ 안내분과(윤태욱)

- 총무 - 김상태/ 위원 - 김진환 김승록 안홍희 고석태 최중희 윤동수 남정열

■ 재정분과(김재근)

- 총무 - 백승갑/ 위원 - 이은희4 홍은심

■ 봉사분과(이계중)

- 총무 - 양지훈/ 위원 - 박연순 안본선 엄금순 박길자 손정미 고정숙 김정희(3) 황정숙 정기자

사명자대회를 시작하며

사명자로서 햇불을 높이 들고



이광열집사(사명자대회 진행분과)

씨가 꺼지지 않도록, 이 불꽃이 서울교회 부흥과 민족교회와 복음화 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우리모두 사명을 받은 자로서 햇불을 높이 들고 기도로 달려가는 서울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국 내외적으로 곳곳에 병들고 무너지는 소리가 가득한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부흥, 가정의 회복을 위한 한알의 밀알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와 전도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자 대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교회는 17년전 교회를 설립할 때 흘렸던 눈물의 기도를 잊지않고 처음 사랑을 지키고 회복하기위해 매년 교회설립 기념주일전 50일간을 사명자대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때는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전도에 힘 쓰는 기간입니다.

2008사명자대회는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세대를 품는교회"라는 주제로 '24시간 릴레이 기도'와 '열열이 기도(오전 10시, 오후 10시)'로 기도의 불



한국기독교학술원 공개강연회

- 예수는 누구인가? -

10월10일(금) 오후2시 100주년 기념관

강사: 이종윤 목사, 김영한 목사

최근 한국사회에는 반기독교적인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29일부터 7월13일까지 4차례에 걸쳐 SBS가 '예수는 신화다'라는 프리키와 갠디의 책을 중심하여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였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하여 예수의 신성과 구주의 유일성을 선포하는 신학공개강좌를 기독교학술원(원장 이종성) 주최로 이종윤 목사와 김영한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10월10일(금) 오후2시부터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갖는다.

성도들의 기도와 참여 바란다.

강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선교대회

10월 2일 (목) 10시 30분 - 웨스트민스터홀

강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선교대회가 10월2일 (목) 10시 30분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열린다. 여전도회 임원 및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스데반회 체육대회

10월3일(금) - 아가페타운에서

우리교회 제 1,2 스데반회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10월3일(금) 아가페타운에서 열린다. 초청 범위는 교역자, 당회원, 제 1,2 스데반회, 피택집사 가족이며 당일 오전 6시10분~30분 까지 순차적으로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주부대학 특강 안내

강사: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

'학부모를 위한 독서학교'를 주제로 운영되고 있는 주부대학에서 9월 30일(화) 10시 30분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를 초청, '저자초청 특강'의 시간을 갖는다. 장경철 교수는 서울여대 인문학부 교수로 '책읽기의 즐거운 혁명'을 비롯해 다수의 글을 저작했다. 특강 장소는 교회 601호로 관심 있는 성도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반갑습니다-황광목사

낮은 곳에서 쓰임 받는 중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울타리를 떠나본 적이 없었고, 가족 모두가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데, 형은 고신측 담임목사로, 여동생은 침례교 사모로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전국 S.F.C (Student For Christ) 임원 활동을 하고, 영적 훈련을 강하게 받으면서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이 되어야겠다"는 결심과 함께 주의 길이 곧 나의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말씀의 실천적인 부분에 부족함을 느껴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윤리(신학석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4월에 목사안수를 받은 이후, 교구사역과 외국인선교회 사역, 직장선교사역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가족으로는 목회자 가정에서 훈련받은 아내와 딸(중학교 1학년)과 두 아들(초등4학년, 1세)이 있습니다.

저의 기도제목은 교회적으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리고, 학문과 영성, 경건함을 갖춘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세계선교와 한국교회를 위해 큰일을 감당하는 서울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구와 말은 부서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교회의 첫 인상은, 말씀의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 분위기로 설교자, 찬양대, 예배위원들이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져 너무나 은혜롭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일1,3부 예배시간에 십계명을 교독하는 것도 제게는 참으로 큰 은혜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까지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기에 온전한 주일성수가 낮설진 않았지만 세속화되어져가는 이 땅에 거룩한 주일성수를 위하여 온 성도가 힘을 쏟는 모습은 감동이었습니다.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속에 참된 교회상을 보여주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신 소명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만민에게 전도 - 비전2020운동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듯

허숙 권사(11교구)

우리 교회는 1992년부터 3년간 매년 전교인이 함께 삼척으로 여름수련회를 간 적이 있다. 1500명의 교인이 수십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긴 행렬을 이루며 삼척으로 가는 모습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 광야를 행진하던 모습과 흡사했을 것이다. 지금처럼 교인이 많고서야 전교인 여름 수련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수련회 첫 해 여름은 몇 십 년 만에 폭염이라고 했다. 어찌됐든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하기까지 했던 전교인 이동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그때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던 때문일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영성 훈련을 하고 바닷가로 물놀이를 가고... 전교인이 호텔보다 규모가 훨씬 큰 삼척대학교에서 잠을 잤고,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근처 2352부대 (지금의 23사단)가 특별 해수욕장을 만들어 우리 교인들만 물놀이를 하도록 했다. 그 인연으로 23사단은 우리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부대 안에 교회(등대교회)를 건축한 것으로 안다. 그 때도 장병들과 연합 집회를 가진 것을 보면 우리교회는 그 때부터 군선교에 크나 큰 비전을 가졌던 것 같다.

아들 윤재가 작년에 군 입대를 했다. 그런데 마침 23사단에 자대 배치를 받았고 분대장 조교로 그곳에서 군 입무를 수행하며 우리 교회가 건축한 등대교회에 다니고 있다. 수련회에 갔을 때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던 윤재가

그 곳에서 군 생활을 하리라곤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다.

그 날은 모두 68명의 군인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 중 절반은 군에 온지 불과 삼 일밖에 안 되었다고 했고, 가족과 헤어진 것조차 실감하지 못하는 듯 모두들 표정이 열떨했다. 한상은 목사님은 요한복음 3:14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메시지를 전하셨다. 처음으로 설교를 들을 지도 모를 세례자의 마음에 부디 사랑의 하나님이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했다. 한 사람을 전도하여 세례를 받게 하기까지 얼마나 큰 정성을 쏟아야 하는지 전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군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큰 사역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저들 가운데 몇 명이나 주님의 참 제자가 될까?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은 자란다고 했던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줄로 믿고 바울처럼 열심히 심고 이불로와 같이 물을 줄 뿐이다.

그 곳에서 군 생활을 하리라곤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다.

지난 8월 30일 비전 2020 본부에서 23사단으로 진중세례식을 간다고 하여 아들도 볼 겸 동행했다. 우리 교회 비전 2020 본부는 3사단, 23사단, 육군사관학교, 해병대 교육훈련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해마다 이곳 저곳에서 진중세례식을 베풀며 군선교를 위해 여러 모양

으로 애쓰고 있다. 그간 아들이 군인이면서도 비전 2020에 큰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에 매우 죄송한 마음이 들었

다.

그런데 저들 가운데 몇 명이나 주님의 참 제자가 될까?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은 자란다고 했던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줄로 믿고 바울처럼 열심히 심고 이불로와 같이 물을 줄 뿐이다.



박한샘 (대학부)

저는 현재 서울교회에 출석하면서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언어치료학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자면, 언어치료학이란 의사소통과정에 생기는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을 연구하고 그 진단과 치료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 언어치료학이라고 합니다. 언어치료학의 영역은 구성요소별로 언어장애, 조음음운장애(발음 장애), 음성장애, 유창성장애 및 청각장애로 나뉘니다.

대학에 오기 전 저는 내성적인 성격과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가서도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대인관계형성과 학교생활에 걸림돌이 될까봐 무서워 대학 초기에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 친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1학기가 끝나갈 무렵 기숙사 사감님의 권유로 다음 학기 기숙사 총장을 신청한 결과 선발되어 다음 2학기 때 총장으로 기숙사생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학교생활은 늘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고 하루하루를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서울교회와 사랑부, 대학부, 권사회, 마리아 전도회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있기에 제가 걱정 없이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늘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좀 더 자자, 좀 더 쫓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24:33-34)와 같은 성경 말씀처럼 게으름 피지 않고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 박한샘이 되었습니다.

박한샘 군은 2급 장애우로 장애우들에게 희망을 보여 주는 모범생이다. -편집자 주

만민에게 전도 - 전도폭발훈련소로

복음으로 무장하여

윤계진 집사 (13교구)

20년 전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은 남편은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양육을 하는데 열심이었지만 아이가 셋인 저는 주일 예배만 힘겹게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전도하지 않는 저의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릴 만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 서울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전도학교에 들어갔고, 70인 전도대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며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장석남 목사님께서 관계전도의 중요성과 비전을 갖고 전도폭발훈련을 시작하실 때, 저는 용감하게도 제1기 훈련생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3주 동안의 전도폭발 훈련을 통하여 복음으로 무장되었고, 저의 가족, 이웃, 친구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은혜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만일 오늘밤이라도 자매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는 확신질문과, "만일 오늘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고 묻는 두 가지 진단질문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물론 훈련을 받는 동안 복음제시 전문을 암기하여야



하는 일은 부담이었지만,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넉넉히 극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훈련을 마친 후 현장실습을 나갈 때 에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제가 떨려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고 망신을 당하게 된다면 이제 전도폭발훈련은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떼쓰는 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채우시

고, 제 능력 이상의 은혜를 베푸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마다 결신하게 하셨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 드리면, 교회에 등록은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는 이웃 엄마에게 복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분은 그 동안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었다면서,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한 사례는, 선행으로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는 성당에 다니는 친구에게 복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며 감격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훈련 자로서 두 명의 훈련생을 세워 제2기 전도폭발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 훈련생 집사님들을 잘 세워 드리고 이러한 영적 배가를 통하여 서울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순서는 백석합창단 초청으로 드러진다. 이 합창단은 기독교대학 백석대학 안에 있는 전문 혼성합창단으로 2006년 3월 창단되었다. 단원 전원은 성악 전공자들이며 4년 전 기간 동안 장학금을 부여받는 합창 특기자들이다. 이들은 교내의 연주회, 선교 연주회, 대내외 특별 연주회, 교회 음악의 교육과 훈련 및 개발보급, 음악활동을 통한 학인 복음화에 앞장서며 선교와 봉사활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방송 시간 변경

이종윤 목사의 CTS TV '생명의 말씀' 방송시간- 9월29일(월) 방영될 프로그가 방송국 사정으로 10월1일(수) 오후 3시 50분으로 변경된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0월2일(목) 연세조찬기도회에서 설교한다.
- 영동시찰회가 9월30일(화) 오전 11시 묘동교회에서 열린다. 우리교회는 이종윤 목사와 부목사 전원 그리고 장로 총대(오정수 정병무 김대호 김영준 이영기 하영수 서문석 민순구 홍성주 이관규 장로-10명) 등이 참여한다.
- 특남: (12교구) 오현식 장지운 성도 가정(장덕 임인자 집사 장녀)
- 개업: (2교구) 이정일 집사, 안지현 집사 - 갤러리 카페 스타트(518-2410)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뒤편
- 이사: (6교구) 옥동호 집사 손지희 집사 가정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수기마을 현대힐스테이트@ 106-604 T.010-9511-9242, 031-986-6036 (11교구) 임옥균 집사 박영자 권사 송파구 문정동 89-15 보라뷰2차 201호 (12교구) 김찬수 이수경 성도 영등포구 도림1동 쌍용플래티늄씨티 1023동 303호 T.070-7534-0844
- 선임: 전광영 집사(13교구) 국립한국예술영재교육원(원장 이영조 집사) 미술 분야 영재선발 심의위원 선임
- 주간식당 봉사: 안드레션교회(9.28) 베드르선교회(10.5)
- 금주의 식사: 천기성 집사 박천희 권사 가정 (자녀결혼을 감사하며) 교회제공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찬양반주자 양성을 위한 기타강습

10월 12일(주) - 오후 3시 903호

찬양반주자 양성을 위한 기타강습이 10월12일(주) 오후3시 903호에서 시작된다.

10주 강습기간 동안 초급반, 중급반으로 나뉘어 열리며 찬송가 기타반주법과 연주법 등을 배운다. 모

집인원은 선착순 20명(사전접수요망)이며 기타와 발판(단체구입)을 준비하여야 한다. 강사로는 우리교회 장윤식 집사가 선다.

자세한 문의는 교회 사무국으로 하기 바란다.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서울성경대학 · 주부대학 · 경로대학 등 각종 열린프로그램들 열매가 풍성하도록
2. 3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다락방 모임에 성령의 인도하심 있기를
3. 2008 사명자대회 은혜 받고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4.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